

간화선 vs 위빠사나 '소통'

불교학연구회 '명상, 이 땀' 주제 겨울워크숍 '묻고 답하기' 진지

'간화선과 위빠사나, 위빠사나와 간화선' 어느 것이 먼저일까? 남과 북을 남북에서는 남북, 북쪽에서는 북남이라며 서로 순서를 앞다투 듯 간화선 수행자들은 위빠사나 수행이 소승 수행법이라 폄하하고, 위빠사나 수행자들은 석가모니 제세 시 간화선은 존재하지 않았던 수행법이라며 비판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를 두고 중국 조사선 일색이던 한국불교에 1990년대를 정점으로 상좌부 불교와 티베트불교 등이 유입되면서 생긴 일시적 문화 충격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무엇보다 두 수행법을 따르는 수행자간에 진솔한 소통이 부재했던 까닭이 크다.

이를 반영하듯,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가 2월 14-15일 공주 마곡사 연화당에서 '명상, 이 땀'을 주제로 개최한 2009 겨울워크숍은 부제를 '간화선과 위빠사나, 위빠사나와 간화선'이라고 적어 양측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반증했다. 이날 100여 명 규모의 연화당을 가득 메운 200여 사부대중은 신라 자장 율사가 마곡사를 창건했을 때 법을 찾아 삼팔의 삼(八)처럼 모였던 모습이다. 대중들은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대결을 지켜보며, 자신에 맞는 이교득(醍醐苦得樂)할 방법을 찾아 고민하거나 자신의 공부를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자 각 5명이 각각의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자신의 수행체계를 곁들여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위빠사나 측에서는 성오 스님(홍원사 주지)과 일목 스님(수행공동체 제파와나), 김열권 법사(위빠사나 지도자), 안병남 박사(델리대), 마가 스님(만일사 주지)이 발표했다. 간화선 측에서는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월암 스님(벽송사 선원장), 무각 스님(공생선원 선원장), 박영재 교수(서강대, 선도회 지도법사), 해봉 오원명 원장(사단법인 밝은세상)이 발표했다.

◇성오 스님은 '마하시 수행 전통과 웨우민 수행 전통의 공통점과 다른 점'에서 "사님



처관 수행을 기본으로 하고 △순수 위빠사나 수행을 선호했으며 △수행점점을 필수로 한 것은 같다. 마하시 수행은 몸의 느낌을 성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단계적 수행에 중시하지만, 웨우민 수행은 마음의 성찰을 중심으로 일상 동중 수행을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

◇일목 스님은 '과속 수행 소개'를 통해 "순수 위빠사나가 대부분이던 미안마 수행에 과속 수행을 소개하며 위빠사나를 수행해왔다. 위빠사나 명상은 허구에 찬 '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준다. 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위빠사나 명상이다. 번뇌를 제거하려면 무상(無



2월 14-15일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겨울워크숍에는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연화당을 가득 메웠다.

사마다 수행을 통한 위빠사나 수행을 강조했다. 유훘법에 대한 애착을 끊고 무유훘에 도달하려면 법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이 세상을 비어있는 것(空)으로 봐야한다고 한 것에서 마음은 완전한 비어 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어 있음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열 권 법사는 '상좌·대승 위빠사나에 대한 소고'에서 "불자라면 당연히 부처님이 걸었던 길을 따라야 한다. 위빠사나는 남방 상좌부 불교의 상좌 위빠사나로, 북방 대승불교의 대승 위빠사나로 나눌 수 있다. 원효 스님도 <금강삼매경론>을 보면 무상관(無常觀)과 무생관(無生觀) 등 근본불교에 가까운 관법을 했다. 불법수행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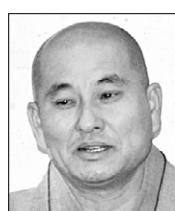
은 사념처다. 부처님이나 아라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근본경전에 따라 체념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 박사는 '고엔카 전통의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인도에서 유학하며 위빠사나를 수행해왔다. 위빠사나 명상은 허구에 찬 '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준다. 열반의 행복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위빠사나 명상이다. 번뇌를 제거하려면 무상(無



상)·고(苦), 무아(無我)를 체현해야 한다. 미안마의 수행법 가운데 고엔카 수행은 재가자를 위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고엔카는 '삼파잔나(지혜로 깨어있음)'를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월암 스님은 '간화선의 이론적 토대'에서 "간화선 수행의 사상적 연원은 해능의 선법이다. 간화선 용어 가운데 자성정정(自性淨淨), 본래면목(本來面目), 주인공(主人公) 등은 (힌두교)의 실체적 진아(眞我), 아트만의 의미로 설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한 공, 무아, 중도를 나타내는 존재의 참모습을 선종 용어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조사선과 초기불교에서의 정념은 일치한다. 화두참



구는 화두로 '깨어' 지혜를 개발하고, 화두로 '열려' 자비를 증진시키는 수행법"이라고 풀이했다.

◇무각 스님은 '한암 선사의 불교사상과 실천행'에서 "한암 선사는 참선과 염불이 둘 아닌 이치를 밝힌 선지식이다. 염불, 간경 등은 자성을 반조하는 데 있어 좌선과 다르지 않다. 공생선원은 선어록 위주로 선수행 지도를 하는 도량이다. 선어록을 많이 듣다보면 성문에 이르러, 참구하다보면 '말하기가 (한 생각 내기가) 무섭다'는 연기의 도리를 자각한 연각의 경지가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비가 발현된 이가 바로 보살"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재 교수는 '간화선, 누구를 위한 수행법인가'를 통해 "어릴 적 마마보이였다가 대학에 진학 후 당당하게 사는 방법을 알고 싶어 간화선을 접했다. 간화선을 하려면 수식관(數息觀) 수행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선도회는 석가세존과 무문해게 선사, 의현종달 노사에 귀의하고, 지속적으로 스승에게 점검을 받는다. 누구나 매일 2시간씩만 좌선하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놀랄만한 성취를 체득할 힘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해봉 오원명 원장은 '한국불교의 간화선 수행,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에서 "부모를 일찍 여윈 탓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수행을 시작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불교가 이슬람으로 대체된 사실 바로 알아야 한다. 간화선 수행법이 최고라는 수행자들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위빠사나가 간화선에 묻다

일목 스님: 간화선에서 의식을 해소하는 구조는 어떻습니까?

월암 스님: 위빠사나가 현상에서의 마음챙김 즉 있음에서의 수행이라면 간화선은 조사선 사상에 기인해 오온의 일체가 공하다는데서 시작합니다. 간화선과 위빠사나가 각각 공과 있음으로 출발한다는 입장을 이해한다면 위빠사나와 간화선은 둘이 아닐(不二) 것입니다.

선가에는 중도를 강조한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선 것은 익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두라는 강력한 의정으로 생멸심을 차단하는 것이 간화선이며, 의단이 깊어져 정정이 이

르렀을때 화두가 타파됩니다.

일목 스님: 부처님이 세세히 설했음에도 왜 깨닫기는 어려운가요?

월암 스님: 업을 정화시키는 구조는 간화선과 위빠사나가 같습니다. 특별히 간화선을 지칭한다면 간화선 매뉴얼이 부재한 것을 이유로 꼽겠습니다. 위빠사나 수행자끼리는 갈등이 많던데 왜 그렇습니까?

일목 스님: 미안마에는 순수 위빠사나와 과속 스님으로 대표되는 사마타-위빠사나 수행법이 있습니다. 제자들간에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위빠사나를 위해 사마타를 할 뿐입니다.

성오 스님: 사띠(念)를 강하게 증장하면 저절로 위빠사나(觀)가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알아차리려 노력해야 하지만, 나중에는 사띠가 이 끌어 옵니다.

마가 스님: 간화선 수행자들은 자비가 없어요. 아주 무자비합니다.

미산 스님: 간화선의 역동성이 무자비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간찰함이 간화인 생명인만큼 정견 확립이 중요하겠지요.

월암 스님: 무자비성이라고 했는데, 임제선이 일어난 화북 지방이 군사문화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임제 선사가 군인들 앞에서 일도 양단하는 법을 펼치다 보니 그렇게 비쳐지기도 합니다.

#간화선이 위빠사나에 묻다

박영재 교수: 간화선을 하다가 위빠사나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 스님: 출가 후 선방에서 다섯 월 나눴습니다. 선방에서 누구에게 물음수도 가르침 받지 못하는 상태가 조금 계속됐고 그냥 관습적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앉아있느라 옹졸은 옹맹정진만 했습니다. 묻는 답에 자비롭게 답해 줄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위빠사나는 달랐습니다. 매 순간 친절함 지도를 해주더군요.

한국불교를 봅시다. 동안거 해제로 2000여 수행자들이 옹맹정진 했었는데 그들이 무슨 공부를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통계를 있습니까? 간화선에 대한 실상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가 전무합니다.

월암 스님: 간화선 점검 체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선원정규>에도 보면 방향, 조실스님이 선방에 나가 직접 지도하고 대중들은 조석으로 점검 받도록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부분이 결재와 해제에 한정

되거나, 조실이나 방장스님이 선사나 바꾼 경우가 많지만 이런 모습들은 간화선 정통의 모습이 아닙니다. 간화선이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고 대중에 다가갈 방안을 찾는 등 현대화를 병행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간화선 본래의 수행 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박영재 교수: 월암 스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실스님 방에 입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간화선의 생명인 간찰함이 더 걸려집니다. 이를 두고 호랑이 굴 들어가는 심정이라고도 하죠. 선도회만 해도 점검 후 1주일간 긴장이 유지돼 수행에 큰 도움을 줍니다. 수행점검 시스템을 복원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간화선은 좋은 스승 아래서 진득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봉 오원명 원장: 가정사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떨치기 위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위빠사나도 해보고 염불, 주력 등 안해본 수행법이 없었

지요. 하지만 위빠사나는 고부간의 갈등 등 구체적인 사례와 귀신병 등에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화두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화두를 들다보니 삼보(三寶, 불·법·승)에 대한 귀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간화선을 버릴 요량으로 티베트불교를 찾았습니다. 그때 티베트 승려가 "소중한 법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버림은 부모를 잃는 것과 같다"며 귀한 법이니 절대 버리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티베트불교에도 화두 수행과 유사한 마하무드라 수행법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정견(正見)을 키우고, 보리심과 육바라밀 등을 고급단계에서 닦는 수행법입니다.

무각 스님: 수행법을 차례로 따지면 선후와 심원이 생깁니다. 하나에 전체가 포함되고 전체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불이(不二)의 정견입니다.

해봉 오원명 원장: 대학에서는 모두 되지만, 초중-고등학교 단계는 차제가 존재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간화선과 위빠사나, 정견으로 회통하다

월암 스님: 간화선과 위빠사나를 비롯해 수행법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간화선 수행자부터 최상승선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혼자만 옳다는 자기당착에 빠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의에서 경전에 따라 장단점을 논할 수 있는 지대인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설해진 것 뿐입니다.

중생의 일념에서 부처의 일념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터 최상승선'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혼자만 옳다는 자기당착에 빠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의에서 경전에 따라 장단점을 논할 수 있는 지대인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열권 법사: 부처님에 대한 정견이 확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일목 스님: 경전에서는 선정(禪定)의 활용함이 인간이 경험하는 최

상의 활용함이라고 했습니다. 선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견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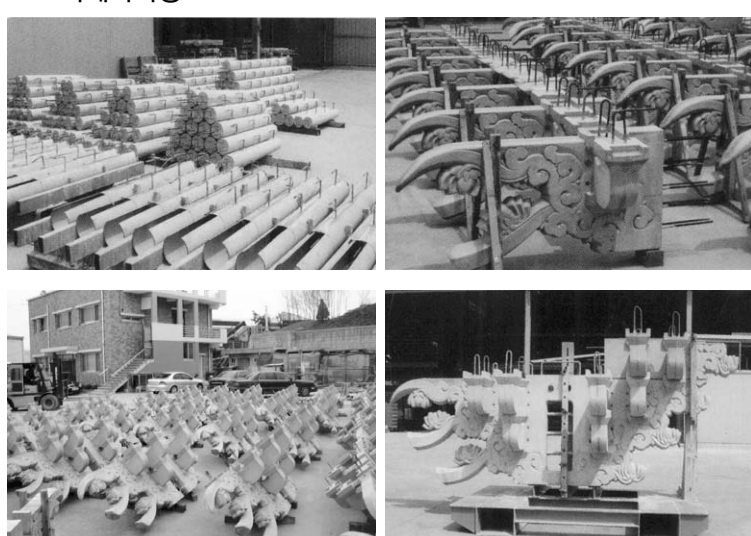
박영재 교수: 부처님 등 스승에 비취 나의 현위치가 어디인지 자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붓다가 20세 일 때 나의 20대는 어떠한가가 예입니다.

안병남 교수: 오늘 많은 이야기 오갔는데, (위빠사나와 간화선 어느 것이든) 수행은 직접 해봐야 합니다.



스님! 이제 장엄불사 시멘트의 조각성형으로 전통사찰(포작) 그대로 시공됩니다

• 포작제작과정



스님의 평수 주문에 따라 석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 완공된 법당



설계에서 시공까지

특징 저렴합니다 / 간편합니다 / 섬세합니다 / 우아합니다

책임은 확실하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 목조사찰건축 • 묘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가인불교건축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376-45 2층
전화. 02)436-1155 Fax. 02)436-1154